

THE READER

가을의 시작점에 읽기 좋은 9월의 신간
에디터 이재림



장식과 범죄

아돌프 로스 | 미디어버스

건축가 아돌프 로스에 관련한 수많은 책이 나왔지만 가장 인정받는 건 1921년 발간된 <허공에 외쳤다>와 1931년 인스브루크의 브렌너 출판사가 수정 각색해서 펴낸 <그럼에도 불구하고>다. 이 책은 두 권의 책을 합본해 번역했다. 그리고 로스의 가장 유명한 비평을 제목으로 달았다.

코스모스 오디세이

호르헤 채, 대니얼 화이트슨 | 사회평론

왜 우주는 텅텅 비어 있을까? 우주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우주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재치 넘치는 과학책은 우주에 대해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잘 보여준다. 그리고 우주에서 가장 짜릿한 부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열쇠

다니자키 준이치로 | 민음사

권태기에 이른 중년 부부가 비밀스럽게 서로 일기를 남기며 상대의 정신과 육체를 쥐락펴락한다. 남편과 아내의 일기를 교차시키며, 마치 실제로 두 사람이 글을 쓴 것처럼 완전히 다른 문체를 구사하는 이 책은 출간 당시 독자는 물론이고 비평가와 정계에서까지 외설 문제에 휩싸였다.

숲에서 1년

토르비에른 에켈룬 | 심플라이프

노르웨이의 저널리스트이자 여행작가인 토르비에른 에켈룬. 호숫가에 텐트를 치고 별을 보며 잠이 들고, 새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햇살과 바람을 느끼고, 낯선 동물과 조우한다. 숲에서 사계절의 변화를 직접 몸으로 겪으며 써 내려가는 책을 읽다 보면 머리가 맑아진다.

어느 독일인의 삶

브룬힐데 품젤, 토레 D. 한젠 | 열린책들

독일 나치 선전부장 요제프 괴벨스를 위해 일했던 브룬힐데 품젤의 증언을 정치학자 토레 D. 한젠이 정리했다. 품젤은 괴벨스 바로 옆에서 4년간 비서로 일했지만 나치의 만행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걸 말이라고 하나 싶지만 저자는 품젤의 이야기를 지극히 담담하게 전한다.

THE EARTH IS ROUND

이토록 아름답고, 정확한 지구를 위하여.

글 주현욱(피쳐 어시스턴트 에디터)



우리가 사용하는 세계지도는 대부분 메르카토르도법을 따른다. 지금이야 3D 프린팅 기술이 있지만, 과거에는 구 형태의 지구를 평면에 옮기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네덜란드 지리학자 메르카토르가 제시한 것이 이 도법이다. 원기둥 안에 지구를 넣고 가운데 불을 켜고 볼을 꺼낼 때 원기둥의 표면에 반사되는 그림자를 그리는 방식인데, 가장 큰 단점은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그 면적이 실제보다 크게 왜곡된다는 것이다. 극지방에 위치한 그린란드보다 14배가량 면적이 넓은 아프리카 대륙이 지도에서 더 작게 그려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쯤에서 소개하려는 지도 제작자가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구본 제작자다. 말 그대로 '예술의 경지'에 가까운 지구본을 만드는 회사, 벨러비앤코 글로브메이커스(Bellerby & Co. Globemakers)가 그 주인공이다. 설립자 피터 벨러비는 2008년, 아버지의 80번째 생일 선물로 지구본을 떠올렸다. 그 당시 그가 구할 수 있는 지구본이란곤 모두 플라스틱으로 만든 싸구려뿐이었다. 평소 취미로 바이올린을 만들 만큼 손재주가 좋았던 그는 직접 지구본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그 일이 커져 지금의 회사를 차리게 됐다. 그들만의 특별한 지구본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다. 우선 고객으로부터 원하는 지구본 크기와 디자인을 세세하게 주문받는다. 그리고 두 개의 반원형 거푸집을 사용해 완벽한 구를 만든 다음, 그 위에 수백 개의 지도 조각을 풀칠해 붙인다. 풀이 마르면 화가들이 붓과 물감으로 수채화를 그리듯 지도를 완성한다. 가장 큰 지구본인 '처칠'은 지름이 무려 127cm인데, 완성하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 그렇게 제작한 지구본을 다시 특수 제작한 비행용 케이스에 담아 고객에게 전달한다. 가격은 적게는 1천1백99파운드, 많게는 7만9천파운드부터 시작된다고, 웬만한 자동차보다 비싼 가격이지만 남다른 심미안을 지닌 사람들이 이 아날로그 방식의 지구본을 구하려고 세계 곳곳에서 구매 대기 중이다. 이 와중에 구글맵스의 행보는 점입가경이다. 최근 2D 평면 지도에서 손가락으로 배율을 낮추면 동그란 3D 지구 모양이 되는 기능을 추가한 것. 4인치 남짓한 스마트폰으로 지구본을 훑적 돌려가며 전 세계 국가의 크기를 정확한 비율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말 그대로 지구가 내 손안에 있는 셈이다. 메르카토르가 세상을 떠난 지 400년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지구인들은 지구를 재현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완전히 다른 두 방식 중 우위를 따질 순 없겠지만 적어도 두 지구인의 마음은 같을 것이다. 자신의 행성을 더 아름답고, 정확하게 그려내고자 하는 욕망 말이다.